# “불국사 교구 발전 위해 대중화합 이끌겠다”

## 불국사, 조실 종우 · 회주 법달 대종사 추대

**1월3일 조실 · 회주 취임 고불식**
**문중 어른스님 모셔 교구 안정**
**“지혜 덕망 갖춘 선지식” 추대**

경주 불국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국사는 1월 3일 조실 · 회주 취임 고불식을 봉행했다. 조실 · 회주 추대 직후 이뤄진 기념촬영. 사진 왼쪽부터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 회주 법달 대종사, 조실 종우 대종사, 불국사 부주지 정문 스님.

경주 불국사(주지 종천 스님)가 종우 대종사를 조실로, 법달 대종사를 회주로 새롭게 추대했다.

경주 불국사는 1월 3일 경내 무설전에서 ‘불국사 조실 및 회주 취임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날 고불식에는 불국사 조실 종우 대종사, 불국사 회주 법달 대종사와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은해사 회주 돈명 대종사, 법주사 회주 도공 스님,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 이영숙 불국사 신도회장, 박완규 수석부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고불식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로 시작했으며 이어 삼귀의 및 반야심경, 헌화 및 내빈 소개로 이어졌다.

불국사는 고불식을 통해 교구의 안정과 종단의 발전을 위해 화합과 지도력을 갖춘 어른스님의 역할이 간절히 필요함을 강조했다. 불국사는 지난 1997년 월산 대종사의 열반과 2023년 성타 대종사, 2024년 종상 대종사의 열반 등 어른스님의 빈자리로 문중 혼란을 예상하고 수행력과 지혜를 갖춘 조실스님과 회주스님을 새롭게 모실 것을 결의했다.

주지 종천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큰스님들의 갑작스러운 열반으로 인한 문중의 혼란을 없애고 교구의 안정과 종단 발전을 위해 수행력과 지혜를 갖춘 새로운 명안종사와 교구와 문중의 화합을 위한 회주스님이 간절히 요구되고 있다”며 “새로운 조실과 회주는 원만한 성품으로 대중을 화합시키고 미래를 보는 탁월한 안목으로 세간과 소통하며 수행자의 자질과 문중, 교구의 발전을 위한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천 스님은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은 새로운 조실에 설당 종우 대종사와 회주 대경 법달 대종사가 가장 적임자라 믿는다. 이에 추대하오니 불조와 역대 조사님께서는 섭수하고 증명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했다.

사부대중은 조실 종우 대종사와 회주 법달 대종사를 추대하며 삼배를 올렸고 꽃다발을 전달했다. 조실 종우 스님과 회주 법달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조실 종우 대종사는 “제가 사실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다”면서 “단지 40여 년 선방에 살았다는 이유로 조실이란 중책을 맡게 된 것 같다. 앞으로 큰스님을 잘 모시고 사부대중과 함께 불국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주 법달 대종사는 “월산 스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새롭게 추대된 조실 스님을 잘 보필하며 주지, 대중스님들과 화합하며 발전을 위해 앞으로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는 축사를 통해 “승가의 6가지 화합 조건 가운데 이화동균(利和同均), 이로운 것을 골고루 나누라는 말이 있다. 이 부분은 조계종 전체뿐 아니라 모든 인간 공동체의 난제로 남아 있다”며 “두 어른스님께서는 앞으로 화합을 위해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으며 우리 모두는 새로 모신 두 스님을 하늘처럼 지극 정성으로 모시고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완규 수석부회장은 발원문을 통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저희들은 불조의 은혜에 보답하며, 새로운 조실 큰 스님과 회주 큰 스님을 잘 받들어 존경받는 청정한 수행공동체가 되도록 소통하고 용맹정진할 것”이라 다짐을 전했다.

설당 종우 대종사는 종우 스님은 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사미계, 1984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1995년 불국사 선원장, 2002년 분황사 주지 소임을 맡은 바 있으며 2014년부터 2022년 10월 18일까지 불국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이다.

회주 대경 법달 대종사는 월정사 탄허 스님을 계사로 출가해 1960년 사미계, 1968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보경사 회주이다.

# 부산불교환경聯·영화사, 녹색사찰 협약

**1월 7일 경내 대웅전서**



부산 영도 영화사(주지 명준 스님)가 지구환경을 지키는 녹색사찰로 협약하고 환경보살의 길로 나아갈 것을 서원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 스님)와 영화사는 1월 7일 영화사 대웅전에서 녹색사찰 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

협약식에는 부산부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과 영화사 주지 명준 스님,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을 비롯해 영화사 신도들이 동참했다.

안도 스님은 “적극적인 실천이 지구를 살리는 방안”이라며 “하나뿐인 지구는 쓰레기와 오염으로 황폐화되고 있다. 환경실천은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며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다. 더 나은 환경을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사 주지 명준 스님은 “전 세계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활동하시는 불교환경연대에 감사하며 저희 영화사도 지구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2022년 4월 출범해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 녹색사찰 제1호 도림사를 시작으로 마하사, 대원각사 등 12개 사찰과 학교가 협약해 녹색 환경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영화사는 부산 녹색사찰 13호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부산경찰청불자회 을사년 신년법회

**1월 8일 부산경찰청 법당서**



부산경찰청불자회(회장 강용창)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신년법회를 봉행하고 명상 수행으로 더욱 성장할 것을 발원했다.

부산경찰청불자회는 1월 8일 부산경찰청 법당에서 신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지도 법사 법진 스님(범어사 사회국장)을 비롯해 강용창 부산경찰청불자회 회장 및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법진 스님은 법문을 통해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상 속에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안내했다. 법진 스님은 “사람이 화를 낼 때 스스로를 잘 살펴보면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스스로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말이며 화를 내기 전에 한계 임계점을 스스로 잘 알아차려야 한다”며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용창 부산경찰청불자회장은 “경찰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감정을 알아차리기 보다는 참는 데만 집중했다”며 “오늘 법문을 통해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해 모든 회원불자들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불자회는 매월 2째주 수요일 부산경찰청 법당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으며 불교신행 활동 및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 부산불교계 “부처님 자비사상, 세상 알리자”

**부산불교연합회 신년하례 봉행**
**1월 6일 범어사 선문화관 강당서**


부산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1월 6일 범어사 선문화관 대강당에서 ‘불기 2569년 부산 불교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부산불교계 승가와 재가 불자가 모여 신년하례를 봉행했다. 부산불교계는 신년하례를 통해 “을사년 한 해 부처님의 자비를 세상에 알려 희망의 빛을 전할 것”이라 다짐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와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이윤희)는 1월 6일 범어사 선문화관 대강당에서 ‘불기 2569년 부산 불교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신년하례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증명 혜총 스님, 회장 정오 스님, 상임부회장 혜진 정사, 마나 스님을 비롯해 부산시 구·군 연합회 회장 스님 등 스님들과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우방우 상임고문, 박형준 부산시장, 이헌승 정각회 회장,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부산불교는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묵념과 추모가로 시작했으며, △개회선언 △삼귀의례 및 반야심경 △고불문 △신년하례 △봉행사 △신년사 △공로상 시상 △자비의 쌀 나눔 △축사 △축원 △음성공양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부산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소외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 5000kg을 부산시에 전달해 자비 나눔으로 한 해를 시작해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박형준 부산시장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백명구)와 김진희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전통문화 보전에 앞장서 왔으며, 독거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운영해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진희 회장은 청년회 활동을 통해 신행 활동에 정진하고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운영에 앞장서 어린이의 건전한 사회성 향상에 기여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정오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부산불교연합회는 2025년 불교문화의 꽃을 피우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해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부처님의 자비를 세상에 알리는 희망의 빛을 선사하고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열어 그 어느 때 보다 장엄한 향연을 펼칠 것”이라 다짐을 전했다.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은 “새해에는 분열과 대립, 그리고 갈등과 역사의 상처를 뛰어넘어 화합과 상생의 대도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연종학림, 준제불모정화수행 입재

**1월 3일 1천일 수행정진**



연종학림(주지 청명 스님)은 1월 3일 경내에서 준제불모정화수행 천일결사 입재식을 봉행하며 정진을 서원했다.〈사진〉

준제불모정화수행은 333일은 선대조상의 업장정화를, 333일은 자신의 업장정화를 마지막 333일은 자손의 업장정화를 위한 기도이다.

연종학림 주지 청명 스님은 천일결사 수행법을 설명하면서 “기도 수행하는 이유는 선대의 까르마를 정화하기 위해서다. 선대의 까르마가 유전되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를 인식해야 한다”며 “대승 불교는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열심히 수행하고 나머지 공덕은 준제보살님의 몫이라고 생각하라”고 정진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배우 이재용 씨는 “청명 스님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온 우주와 연관이 있고 나 혼자만의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존재의 평안을 위해서 수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천일 후 결과물을 모두가 잘 받아가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한편, 연종학림은 천일동안 매일 불자들의 수행동참비를 모아 회향일에 조계종복지단체에 보시하여 자비나눔으로 천일결사를 회향할 예정이다. 010-7311-1699

이도경 부산지사장

# 전국교직원불자聯 수련회…‘인공지능 시대와 불교’ 주제

**1월 3~5일 하동 쌍계사서 개최**
**활동 격려 위한 표창장 수여도**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회장 김경희)가 1월 3일부터 5일까지 쌍계사 문화예술관에서 불기2569년 겨울수련회를 개최했다.〈사진〉

‘사찰순례와 인공지능 시대의 불교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 김경희 회장 등 교사 불자 90여 명이 동참했다.

수련회 입재식을 통해 회원들의 활동을 격려하는 표창장 전달이 이뤄졌다. 김명옥 서울지부 회장이 총무원장 표창장을, 박향림 부산지부 사무총장은 포교원장 표창장을 각각 수상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포교부장 남전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교육은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이라며 “모두가 평등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불법의 향기가 온누리를 뒤덮는 모습으로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열정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통일신라 대학자 최치원은 쌍계사를 호리병 속의 별천지라며 극찬을 했다.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 쌍계사의 가치를 체험하고 유익한 시간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새로운 시작으로 도전하며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오늘 선·교·율·차와 범패 등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쌍계사에서 수련회를 개최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련회는 입재식에 이어 쌍계사 사찰문화 체험 및 예불이 이어졌으며 △생활 속의 마음 공부(법상 스님) △법화경 자아게(허은정 부산자림회 회장) △인공지능시대의 불교(보일 스님)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사찰순례는 연곡사 및 화엄사 탐방으로 진행됐으며, 화엄사에서는 신년하례 및 화엄법회에 참석해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의 법문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문화 강연은 박소산 동래학춤 이수자와 국악인 김도경 명창과 함께 펼쳐진 화합의 장으로 이어졌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세계명상마을,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전국 각지서 80여 명 동참**



문경 세계명상마을(선원장 각산 스님)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새해 1월 1일까지 경내 일원과 봉암사에서 2박 3일간 ‘새해맞이 선명상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사진〉 80여 명의 동참자들은 선명상 철야정진과 봉암사 참배로 진정한 휴식을 체험했다.

‘새해맞이 선명상 템플스테이’의 백미는 선명상 철야정진이었다.

각산 스님은 법문에서 “밥 먹으면서 밥먹는 것을 알고, 걸으면서 걷는 것을 알면,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지금 여기에서 마음평안을 체험한다”고 설했다.

템플스테이는 1월 1일 봉암사 참배로 회향했다.

김민재 기자